

회 보

2015.4
17권 1호

- ▣ 17대 집행부 및 이사회 소개
- ▣ 17대 집행부 활동 보고
- ▣ 14개 지역협의회 활동 안내
- ▣ 제33회 NAKS 학술대회 안내
- ▣ 언론에 보도된 재미한국학교협의회



www.naks.org

정체성 함양과 뿌리 교육을 실현하는
재미한국학교협의회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Korean Schools

목 차

제17-1호 | 2015. 4.

03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소개

04 환영사

총회장 최미영

05 격려사

이사장 장동구

06 축사

뉴욕주재관 오영훈

07 제12대 이사회

08 제17대 집행부

10 제17대 집행부 주요 사업

*차세대 교사 워크숍

*SAT-II 한국어 모의고사 및 예상문제집 출판

*백범일지 교육안 공모대회

*상설 강사 목록집 / 학교운영 서식집 발간

*백범일지 독서 감상문 쓰기대회

*나의 꿈 말하기 발표회

*NAKS 평가교재

*2015년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집중연수회

*2015년 순회연수-서북미, 콜로라도, 북기주

*미국 정규학교에서의 한국 역사문화 실태 조사

*제33회 재미한국학교협의회 학술대회

21 제17대 집행부 추진 사업 보고

*주미 대사관 방문

*인수인계 / 시무식

*정종철 교육관 간담회

*제1차 차세대 교사 워크숍

*재외동포재단 조규형 이사장과 간담회

*지역협회장 연석회의

*SAT-II 한국어 모의고사 출제위원회

*2015년 순회연수

25 지역협의회 소개

39 신문기사로 살펴 본 협의회 활동

41 새로 단장한 NAKS Web

42 후원 단체 및 개인 명단 / 후원 안내

NAKS 회보

발행일 2015년 4월 1일 통권 제17-1호 발행인 최미영 | 편집인 김인숙

발행처 재미한국학교협의회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Korean Schools) www.naks.org

Copyright © 2015 The National Association for Korean Schools, Inc. All Rights Reserved.



제 33 회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총회 및 학술대회

미래를 향한 창의적인 차세대 교육

- 사전 개최: 집중연수 7월15일(수) ~ 7월16일(목)
- 동시 개최: 제2회 『백범일지』 교육안 공모대회
제5회 『백범일지』 독서 감상문 쓰기대회
제11회 나의 꿈 말하기 대회 수상자 발표

일 시: 2015년 7월 16일(목) ~ 18일(토)

장 소: Teaneck Marriott Hotel, NJ

- 등록마감: 5월 31일(일)
- 등 록: www.naks.org
- 문 의 처: 이승민부회장
vp-sl@naks.org

Google's Mistake? Return My Name!

Dokdo Belongs to Korea!

Before 10/24/12
Dokdo 울릉군 799-805



After 10/24/12
Liancourt Rocks



구글 지도에서
독도 이름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단결입니다!

독도 이름 되찾기 서명 운동에 NAKS가 함께 합니다.

구글에 들고 갈 서명에 지금 동참해 주세요.

www.naks.org / sfkorean.com 에서 서명해 주십시오.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소개

1 소 개

재미한국학교협의회는 미주에 있는 1,000여 주말 한국학교의 연합체이다. 한국어, 한국문화 및 역사 교육의 개발과 육성, 한국에 대해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통한 긍지 함양, 교육정책에 대한 건의와 협조 추구 등 한인 차세대들에게 올바른 정체성과 긍지를 심어주는 종합 한인 교육 기관으로서 1981년에 창립된 이래 현재 미국 연방 정부에 비영리단체(501(c)(3) EIN #52-1596204)로 등록되어 있으며 미국 전역에서 1,000여 개의 회원 학교들이 함께 2세들의 미래 교육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다.

본 협의회는 미국의 전 지역을 지역별로 나누어 전국협의회 산하 14개의 지역 협의회를 두고 있으며, 각 지역협의회는 소속 한국학교의 발전과 교사들의 교육 전문성 향상 그리고 2세들을 위한 효과적인 한국어 및 역사문화 교육을 위하여 다양한 자체 행사를 하고 있으며 전국협의회와 교육 행사 및 교사 연수 그리고 교육 정보에 관하여 상호 협조하고 있다.

2 3대 중점사업

1. 열정과 전문성을 갖춘 교사 육성
2. 한국어 및 한국역사 문화 교육 강화
3. 표준화 된 교육과 평가안 개발

3 10대 육성사업

1. 학술대회 및 정기총회
2. 지역협의회 활성화 및 차세대 나의 꿈 말하기 대회 등을 통한 리더십 훈련
3. 집중연수, 순회연수 및 기타 연수 프로그램
4. SAT-II 한국어 모의고사 및 예상 문제집 발간
5. 차세대 교사 워크숍 및 역사 문화 교육
6. 백범일지 교육안 공모 대회 및 독서 감상문 쓰기 대회
7. 한국어 교재 및 한국학교 평가 교재 발간
8. 학교 운영 및 행정용 서식집 발간
9. 협의회 회보, 한인교육 연구지 및 백서 발간
10. 협의회 Web-site의 강화

뉴욕 지역에서 개최되는 제33회 학술대회에 선생님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최미영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총회장

안녕하십니까?

동포 차세대의 바른 정체성 교육을 위해 주말마다 헌신 봉사하시는 14개 지역회장님, 교장 선생님 그리고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회원학교 선생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제33회 학술대회에 여러분 모두를 초청합니다.

재외동포재단 통계에 따르면 현재 181개국에서 700만의 동포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1860년대 이후 중국과 러시아 지역으로 흩어지기 시작한 우리 한민족은 어디에 가서 살든지 자녀들에게 한민족의 뿌리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를 세워 왔습니다.

지난 1981년에 설립된 재미한국학교협의회는 14개 지역협의회로 조직되어 있으며, 1,070여 개의 회원학교가 소속된 비영리 교육 단체입니다. 현재 5천여 명의 교사가 58,000여명의 동포 학생들의 한국어 및 한국 역사, 문화 교육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본 협의회는 여러 선생님들이 자원봉사 정신을 바탕으로 전문적인 교육자로서 소양을 함께 키워나가며 함께 나누는 귀한 교육 단체입니다.

그동안 협의회에서는 교사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학술대회와 교사연수를 통한 정보 교환과 나눔의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올해부터는 순회 강사제, 상설 강사제, 집중 연수, 차세대 교사 워크숍, 리더 교사 연수회, 온라인 수업 등 각종 연수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민 3세와 4세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에 따라 1.5세와 2세 등의 차세대 교사들의 확충이 매우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차세대 교사를 위한 워크숍을 마련하여 교육 백년대계를 향해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사업으로는 나의 꿈 말하기 대회, 독서 감상문 쓰기 대회 등을 통해 각 지역에서 하는 행사를 돕고 지역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한국어 수업에 대한 평가를 위한 평가 교재 발간, 대학 입학 자격시험인 SAT-II 한국어 모의고사 실행 및 SAT-II 한국어 교재 발간을 계획하고 있으며 지난 30년간의 역사를 기록하는 백서 발간도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는 세계적인 대도시이며 세계 문화의 수도로 불리는 뉴욕 지역에서 7월 16일부터 3일간 “미래를 향한 창의적인 차세대 교육”이라는 주제로 제33회 학술대회가 개최됩니다. 지난 1993년 이후 20여년 만에 동북부 지역에서 개최되는 큰 행사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뉴욕은 누구나 한 번쯤 와 보고 싶은 도시이기에 많은 선생님들이 학술대회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어 약 1,000여명의 회원교 교사와 한국, 남미, 캐나다, 호주 등지에서 교사 및 한국어 교육 관련 교수 및 정부와 단체 대표들이 참석하는 대규모 행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제적이고 적용 가능한 강의와 만남과 나눔이 왕성하고 즐거운 학술대회가 되도록 집행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 학술대회에 참석했을 때의 가슴 설레고 즐거웠던 추억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모두가 그런 첫 만남의 기쁨을 회복하고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주말마다 수고하시는 모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 선생님들과의 만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적극적인 홍보와 이사회 활동을 통해 본 협의회가 널리 알려지기를 바라며

지난 몇 년간 회보 발간이 중단되어 협의회 내부와 지역 협의회 소식에 궁금해 하고, 아쉬워하던 차에 제17대 최미영 총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 제17권1호로 회보를 재 발간하게 됨에 함께 기뻐하며 축하합니다.

재정 문제와 함께 여러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시작된 현 집행부가 지난 수년간 매우 긴요하게 요구되었던 ‘차세대 교사 Workshop’을 연초에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하여 이번 회보를 통해 협의회가 변화되고 발전해가는 모습을 전하고 나눌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장동구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이사장

2013년 9월 1일부터 제12대 이사회가 출범하면서 가장 중요한 목표로 본 협의회자체 기금 마련의 기초를 조성하기 위해 기금모금위원회 구성에 노력하였으나 지금까지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부분은 16대 집행부의 부실 관리로 인해 17대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NAKS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두가 협력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지역협의 회장단 연석회의에서 플로리다 김현 회장님께서 실천으로 보여준 도움과 섬김이 우리 모든 회원님들께 본보기가 되어주었고, 현 집행부가 큰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기금마련에 대한 장애요인을 몇 가지 살펴보면, 첫째는 NAKS의 홍보 부족으로 많은 분들이 "재미한국학교협의회에 관하여 아는 바 없다"라고 하고 있는 점입니다. 본 협의회 및 지역협의회의 각 사업과 행사는 동포사회에 후세들을 위한 가장 중요한 소식이고 홍보의 대상입니다. 다른 이가 알아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먼저 알리며, 적극적으로 홍보에 주력해야 합니다. 현재 홍보 자료와 회보,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해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는 만큼 좋은 소식이 기대됩니다.

둘째는 이사회 구성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는 점입니다. 현재의 이사회는 행정 이사회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왔는데, 앞으로는 기금을 모으는 일에 앞장서는 이사를 영입해야하는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통해 NAKS 회원님들의 헌신과 봉사정신이 널리 알려지고 또한 차세대 정체성 교육을 위해 여러 단체와 기관에서 재정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회보 재발간을 축하하며, 아무쪼록 뉴욕에서 개최되는 제33차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에 많은 선생님들께서 참석하셔서 변화된 NAKS의 모습도 함께하고, 서로 배우며 나누는 성공된 학술대회가 개최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는 임원님들, 동북부지역 임원님 및 준비위원님, 그리고 소속 학교 모든 선생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희망찬 제17대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집행부의 성공적인 활동과 역할을 기원합니다.



오영훈

재외동포재단 뉴욕주재관

안녕하십니까?

재미한국학교협의회의 금년도 회보 발간을 축하드리며, 오늘 지면상으로나마 여러 한글학교 관계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해 2월말 부임 이래 몇몇 한글학교를 방문하고 협의회 행사에 참석 하면서 우리 교사분들이 얼마나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우리 아이들을 육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한민족의 정기를 전수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고 계신 재미한국학교협의회와 한글학교 교사 여러분들의 피땀어린 노력과 헌신적인 봉사에 찬사를 보냅니다.

여러분들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수고하시면서 일구어 놓으신 많은 일들은 훗날 역사와 우리 후손들이 역사와 우리 후손들이 평가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초심을 잃지 말고 정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전세계 2,000개 한글학교 중 절반에 가까운 학교가 현재 미국에 소재하고 있으며, 9,000여명의 교사가 봉사하고 있고, 5만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한글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글학교 다수를 관장하며 자라나는 세대를 육성하고 있는 재미한국학교 협의회는 실질적인 최대 규모의 단체로서 그 임무는 더할 나위 없이 막중하다 하겠습니다.

재미한국학교 협의회는 그간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많은 변화와 발전을 이루어내셨고,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우리의 얼을 심어 주는데 많은 역할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도 잘 해 오셨지만 이제 제17대 집행부 출범을 계기로 협의회가 다시 한번 일치단결하여 결속을 다지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하여 힘찬 결의를 다져 많은 일선 한글학교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협의회가 되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재미동포사회는 100년 이상의 이민역사가 진행되었고, 이미 2·3세대 학생들이 상당수 증가, 현지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한글학교에는 중·고교생 학생수는 지속 감소하고 있는 반면, 유아와 유치반 학생수는 증가하는 등 새로운 변화와 환경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협의회가 한글학교의 임무와 기능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기존의 사업방향과 내용을 재검토하여 환경변화에 걸맞는 교육시스템을 구축해 나감으로써 더욱 선진화되고 고객지향적인 한글학교로 거듭 발전해 나가길 기원합니다.

특히 금년 7월에는 뉴욕에서 학술대회가 개최됩니다. 이번 대회는 교사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통해 역대 어느 대회보다도 우리 교사들에게 유익하고 성공적인 대회가 될 거라 확신합니다. 저희 재외동포재단으로서도 교육 부문에 우선순위를 두고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충하고 사업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미한국학교협의회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성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민족의 얼과 문화전파에 힘써 주시는 모든 관계자분 및 선생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제12대 이사회

① 구성원

직 위	Korean Name	English Name	Phone No.	Email
이사장	장동구	DongKoo Chang	415-299-1379	dkoochang@gmail.com
부이사장	김대영	Daeyoung Kim	301-762-3873	daekim3@gmail.com
총무이사	김미경	Mikyung Park	919-244-9032	mipark@hotmail.com
직전 이사장	이광호	KwnagHo Lee	917-657-3939	kwangholee@yahoo.com

주소: 24 Surfwood Cir. San Rafael, CA 94901

Website: <https://www.naks.org>

② 선출이사

■ 2015년 8월 31일 임기완료 선출이사

Korean Name	English Name	Phone No.	Email	Year	Region
김태훈	Tae hoon Kim	409-882-1320	thkim924@gmail.com	2015	남서부
김옥현	Oakhyun Kim	404-483-9221	oakhyun@hotmail.com	2015	동남부
홍승희	Seunghee Hong	256-520-6293	angehong@gmail.com	2015	동남부
이시형	Stephen Lee	720-341-439	denvercaks@yahoo.com	2015	콜로라도
추성희	Tiffany Chew	301-385-3498	mkjoy1@gmail.com	2015	워싱턴
장동구	DongKoo Chang	415-299-1379	dkoochang@gmail.com	2015	북가주
신현주	Hyeonju Shin	407-928-6242	jshin321@yahoo.co.kr	2015	플로리다

■ 2016년 8월 31일 임기완료 선출이사

Korean Name	English Name	Phone No.	Email	Year	Region
남 일	Il Nam	508-523-5389	ksneusa@verizon.net	2016	뉴잉글랜드
김대영	Daeyoung Kim	301-762-3873	daekim3@gmail.com	2016	워싱턴
안승훈	SoongHoon Ahn	847-924-5916	ahnsoong@hotmail.com	2016	중남부
김미경	Mikyung Park	919-244-9032	mipark@hotmail.com	2016	동남부
황현주	Hyunjoo Hwang Kim	201-723-9192	hyunjooawang@hotmail.com	2016	동북부
고은자	Eunja Ko	917-757-5667	koeunja@gmail.com	2016	동북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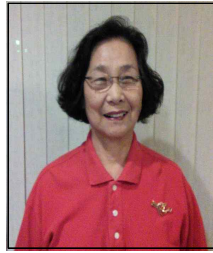
■ 2017년 8월 31일 임기완료 선출이사

Korean Name	English Name	Phone No.	Email	Year	Region
심운섭	Eun Sup Shim	203-450-2300	csksshim@gmail.com	2017	동북부
이승숙	Sueng Sook Yee	443-472-0421	sueyee55@yahoo.com	2017	워싱턴
김선미	Sunmi Kim	248-767-4924	sunmiy@hotmail.com	2017	미시간
송지은	Susie Coover	209-662-0605	sscoover@msn.com	2017	북가주
김사비나	Savina Kim	808-990-1356	savinekim@hanmail.net	2017	하와이

제17대 집행부



최미영 총회장



김정자 부회장



김인숙 부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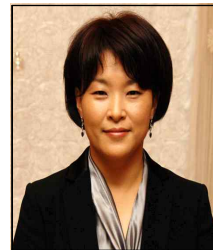
이승민 부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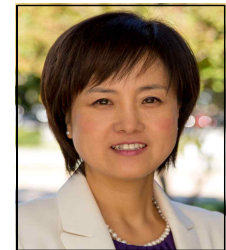
오정선미 사무총장



유미순 재무



한희영 교육



권예순 홍보

직위	Korean Name	English Name	Phone No.	Email
총회장	최미영	Miyoung Kim	408-892-1623	president17@naks.org
부회장	김정자	Chung Ja Y Kim	609-224-3465	vp-ck@naks.org
부회장	김인숙	In Sook Kim	513-238-6679	vp-ik@naks.org
부회장	이승민	Seungmin Lee	703-628-4537	vp-sl@naks.org
사무총장	오정선미	Sunmi Jung Oh	267-255-4653	gs@naks.org
재무	유미순	Kristie Yoo	720-252-3295	treasurer@naks.org
편집장	황정숙	Jane Cho	908-420-3953	editor@naks.org
교육	한희영	Hee Young Han	408-482-9509	edu@naks.org
홍보	권예순	Yeasoon Kwon	469-231-2733	pr@naks.org
웹마스터	김원구	Wonkoo Kim	408-828-9097	web@naks.org

임원들의 한마디...

■ 총회장 최미영

광복 70주년이자 협의회 창립 34주년을 맞이하는 2015년입니다. 백년지대계의 교육 중에서도 특별히 재미한인학생들의 정체성 교육을 위해서 앞장서 나아가고 있는 우리 협의회가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하는 것은 맞춤형 교사연수입니다. 이중 언어가 가능하고 미국식 교육 환경과 상황을 더 잘 이해하는 차세대 교사의 양성과 확충을 위한 교사 연수 및 학술대회와 순회연수 등을 통하여 동포 학생들의 정체성 교육을 위한 교사 전문성을 향상하는 일에 앞장서려고 합니다. 주말한국학교에서의 역사문화 교육이 더욱 강화되어야 함도 정규학교에서의 한국 역사문화 교육 실태 조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SAT-II 한국어 교재 발간, 평가 교재 발간, 서식집과 상설 강사 목록집 및 백서 발간도 2015년에 이루어지도록 집행부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과제들을 앞두고 NAKS 교육의 방향을 잘 설정하며 협의회 소속 지역협의회와 학교를 위한 교육사업을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 부회장 김인숙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중한 밑알이 되어”

크고 작은 단체에서 소중한 작은 밑알이 되어 열정과 헌신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축복의 역사가 이어지는 우리 재미한국학교협의회가 되어 창대한 발전과 번영하기를 바랍니다.

■ 부회장 김정자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안녕하십니까? 저는 NAKS 임원이 되어서 두 가지를 생각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는 내가 NAKS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고, 다른 하나는 내가 NAKS에 어떤 도움을 드릴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고민하는 과정에서 위대한 대통령 링컨의 삶을 되돌아보았고, 그의 가장 위대한 연설이자, 신념인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을 떠올렸습니다. 남을 배려하고 소통의 문을 열고 올바른 생각을 갖고 행동하면 아름다운 열매는 저절로 열립니다. 이 열매가 더 아름다운 열매를 계속해서 내놓으면 아름다움이 가득해져서 향기를 뿜어 낼 것입니다. 저는 낙스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낙스에 2년 부회장으로 있는 동안만이라도 *"of the NAKS, by the NAKS, for The NAKS"* 를 명심하면서 임무에 임하려고 합니다.

■ 부회장 이승민

저는 부회장으로서 총회장이 본 협의회의 영향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돕고자 합니다. 새로운 교육 방향과 방법을 제시하고 각 학교와 지역협의회의 행정에 도움을 주므로 지역사회와의 연계 프로그램을 활성화시켜 한국어 교육을 선도해 나가는 협의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를 위해서 본 협의회의 중심이 되는 이사회가 회원의 이익을 대변하고 올바른 이정표의 역할을 감당하여야하며 만들어지는 모든 결정에 도달하는 경위가 납득 가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협의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함께 하고자 합니다.

■ 사무총장 오정선미

"동행하는 즐거움"

17대 임원들과 동행한 지 어느덧 반년이 되어간다. 가장 즐거운 일은 같은 꿈을 안고 같은 곳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동료들이 많이 생긴 일이다. 넓고 넓은 미국 곳곳에 계신 분들이라 얼굴을 자주 뵙지는 못하지만 각자 맡은 사업으로 또 유선회의로 하루가 멀다 하고 만나다 보니 금세 정이 들었나 보다. 사무총장이란 임원직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우여곡절 끝에 맡게 되었다. 능력도 달리고 어리바리한 내가 이 일을 잘해낼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앞선다. 하지만 어차피 맡게 된 일이라면 모자란 부분을 채울 수 있도록 더 노력하려고 한다. 다행히 함께 걸어가는 동료들이 가족같이 편안하고 친근하고 또 배울 점이 많은 분들이라서 참 행복하다. 한국학교 일을 시작하면서 좋아하게 된 성경 말씀이 문득 떠오른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28)

■ 재무 유미순

늘 지역협의회 회장으로 낙스에 관심을 가졌었는데 임원을 맡고 보니 또 다른 느낌이 듭니다. 좀 더 걱정할 일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렵게 시작한 17대이지만 총회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임원들이 밝고 관심을 가지며 서로를 아끼는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일을 하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낙스를 오래전부터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후원도 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궁핍 속에 행복을 느끼기도 하며 많이 배우기도 합니다. 사랑스러운 임원들과 함께 일하며 가까운 관계를 가지게 되어 저는 재무로서 맡은 재정을 정성껏 정확하게 관리, 기록하며 불필요한 지출을 방지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낙스가 날로 발전되기를 바라며 희망을 가져봅니다.

■ 교육 한희영

늘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고, 행동은 생각보다 느리다. 지난해 9월 20일 인수인계식을 기점으로부터 생각해 보아도 5개월의 기간 동안 낙스 임원으로서 무언가를 배우고, 무언가를 집행했다. 5개월 동안 회의와 만남을 통해 우리 17대 NAKS 임원이 되어갔고, 그러면서 무언가를 만들기 시작했다. 겨우 5개월의 시간을 낙스 임원, 그것도 교육이라는 부서에 집중했는데 이상하리만큼 느껴지는 시간의 길이는 5개월이 아닌 50개월쯤 된 것 같다. 늘 시간은 생각보다 빨랐는데 낙스에서는 행동이 시간을 앞지르고 있는 느낌이다. 이것은 나 혼자만의 느낌이 아니라리라 생각한다. 리더의 속도에 맞추다 보니 모든 것이 빛의 속도로 진행되어간다. 차세대 교사 워크숍을 하면서 느낀 17대의 속도는 진지했고, 보람찼으며,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할 줄 아는 호흡의 속도였다. 일은 일이다. 일이 끝나고 그 일로 인해 추억과 보람이 남아야 하고 그것을 온전히 누리는 것은 우리이다. 힘들지만 우리가 맡은 일을 잘 즐기며 완성하여, 추억과 보람으로 만들 수 있는 우리 17대가 되길 소망해본다.

■ 홍보 권예순

내 자녀, 내 가족에 한정되었던 제 삶이 한국학교에 참여하면서 이웃과 함께하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한국학교를 통해 저는 봉사와 나눔의 가치를 깨달았습니다. 재미동포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일한다는 막중한 사명감을 되새기며 늘 초심을 견지하려 마음을 다잡습니다. 최미영 회장님과 임원분들과 함께 손잡고 사랑을 나누며 나아갑니다. 이 소중한 만남에 감사를 드립니다. NAKS를 위해 일하는 이 시간이 제 인생의 자부심이자 보람이 될 것을 믿습니다.

차세대 교사 워크숍

1. 목 적

- 가. 차세대 교사의 현재 위치, 현재의 문제를 나누고 이를 바탕으로 차세대 교사의 비전을 모색하여 본다.
- 나. 차세대 교사의 전문성을 특화시켜 한국어 교육의 질과 효율성을 높인다.
- 다. 차세대 교사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호 정보교환 및 협력을 통해 발전을 도모한다.

2. 참가자격

- 가. 2세(미국 출생) 혹은 1.5세(대학교부터 미국에서 교육) 교사
- 나. 3년 이상 근무한 지역협의회 소속 교사로 지역 협의회장의 추천을 받은 교사

3. 참가 교사가 할 일

- 가. 설문지와 신청서 작성/ 효과적인 수업 보고서(교안)
- 나. 2세 혹은 1.5세로서 한국학교 교사를 하면서 경험했던 내용을 Letter 용지 3페이지 이상/ 파워포인트 6장 정도로 요약한 내용을 제출한다.

담당자: 한희영 교육, HP: 408-482-9509, Email: edu@naks.org

■ 제1차 차세대 교사 워크숍



1. 선발지역: 서북미, 콜로라도, 남서부, 북가주
2. 일시/장소: 2015년 1월 17일 ~ 18일 / Hyatt Regency San Francisco Airport, CA
3. 참가자 혜택: 항공료, 숙박비(2인 1실), 식사 제공

Workshop 후기

차세대 교사 워크숍은 차세대 교사들에게 맞춤형 워크숍을 제공하여 그들의 역할을 극대화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한국어 교육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기획된 사업이었다. 1박이지만 우리의 행사를 가장 빛나게 해줄 호텔을 찾는 것을 시작으로 강사님을 청빙하고, 각 협의회별로 교사 추천을 받고, 교재를 만들면서 프로그램 하나하나가 형태를 갖추어져 갔다. 각 지역에서 모인 선생님들의 낮은 눈빛으로 시작된 워크숍은 강의와 토론이 이어지고 함께 의견을 나누면서 서서히 혼자만의 고민이고, 힘듦이었던 문제들이 모두의 것임을 깨달아 갔고 그러면서 함께 그 고민을 나누고 해결점을 찾기 시작했다. 선배들의 경험과 열정을 들으면서 차세대가 가진 장점을 깨닫고 우리가 나아갈 바를 찾아보는 시간이 되었다. 마지막 시간에 주어지는 나의 비전 스피치는 현재의 나와 미래의 우리를 함께 조명해보는 귀중한 시간이 되어주었다. 평가서를 통해 선생님들은 한결같이 다른 차세대 선생님을 만나 소통하고 비전과 리더십에 대해 배울 수 있게 됨을 감사하다고 하였다. 이번 워크숍이 차세대 선생님들에게 차세대 교사로서의 자부심과 열정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음에 깊이 감사한다.

SAT-II 한국어 모의고사 및 예상문제집 출판

1. 현 동향

매년 11월 Collage Board에서 실시하는 SAT Subject Test 언어 시험(9개 언어) 중 한국어 시험은 1996년에 개설되었고, 중국어(1위, 6,585명 응시), 스페인어(2위, 4,898명 응시) 이어 세 번째로 많은 학생(한국어 3위, 3,552명 응시)이 응시하는 인기있는 선택과목이다.

(출처: 2012, Collage Board)

2. 제19차 전국 SAT-II 한국어 모의고사

- 1) 시행일시: 2015년 3월 20일(금) ~ 3월 22일(일)
- 2) 참가자격: 정규학교 5학년 이상의 한국학교 재학생이나 졸업생, 일반 동포 자녀
- 3) 응시료: 무료
- 4) 출제범위: 듣기(Listening Comprehension), 어법(Usage), 독해력(Reading Comprehension)
- 5) 문항/ 시간: 80문항/ 1hr

이번 제19차 SAT-II 한국어 모의고사 출제위원회는 영역과 유형별로 문제의 난이도를 분석하고 조절하여 새롭게 만든 80문제를 엄선하였고, 전문감수를 거쳐 모의시험문제가 완성된다.

또한, 듣기 시험영역을 위한 지문녹음 CD를 제작, 3월 초 각 지역협의회를 통하여 응모 접수학교에 문제지와 지문 CD, 답안지를 분배한다. 각 학교에서 3월에 모의고사를 치른 후, 3주 안에 답안지를 SAT-II 한국어전문 방정웅 위원장께 보내면 모의고사 답안지를 철저히 평가/ 분석한 모의고사 시험결과물을 5월 중에 받게 된다.

■ 제19차 SAT-II 한국어 모의고사 지역별 응시현황: 188개 학교 3,403명

번호	지역협의회	학교	참가신청	번호	지역협의회	학교	참가신청
01	남서부	8	142	09	중서부	11	135
02	뉴잉글랜드	5	192	10	콜로라도	5	54
03	동남부	12	245	11	플로리다	4	66
04	동북부	24	503	12	하와이	7	50
05	미시간	2	42	13	동중부	9	120
06	북가주	31	550	14	중남부	8	78
07	서북미	19	308	합 계		188	3,403
08	워싱턴	16	278				

담당자: 김인숙 부회장, HP: 513-238-6679, Email: vp-ik@naks.org

3. 특강안내

SAT-II 한국어 전문위원회는 오는 7월 16일~19일에 열리는 제33회 재미한국학교협의회 학술대회에서 제19차 모의고사 결과 평가 및 앞으로의 실력 향상과 시험 전략을 위해 새롭게 발행하는 SAT-II 한국어 예상 문제집 제2권을 소개하고, 그 사용법을 안내하는 목요일 특강을 준비하고 있다.

『백범일지』 교육안 공모대회



1. 목 적

겨레의 큰 스승이신 백범 김구 선생의 삶과 사상이 담긴 『백범일지』를 통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선생의 생애와 겨레사랑 및 나라사랑 정신을 바르게 알리고, 참된 용기와 지혜, 불굴의 투지와 희생정신을 고취시킴과 동시에 한국인의 정체성을 바르게 지녀 개인과 사회, 국가를 위해 자신의 역할을 다하도록 돕는 데 있다.

2. 주최: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 재단법인 김구재단

3. 대상자: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 소속 한국/한글 학교 교사

※ 제외 대상: <제1회 교육안 공모대회> 백범상, 최우수상, 우수상 수상자 제외

담당자: 권예순 홍보, HP: 469-231-2733, Email: pr@naks.org

■ 2015년 NAKS 제2회 『백범일지』 교육안 공모대회

① 대회 일정

내 용	일 자	내 용	일 자
대회 공지	2015. 1. 14.(수)	공모 마감	2015. 4. 28.(화)
신청서 마감	2015. 2. 10.(화)	심사 발표	2015. 5. 14.(목)
도서 발송	~2015. 2월말	시상식	2015. 7. 17.(금)

② 심사 및 당선자 선정

가. 심사: 김구재단 심사위원회

나. 심사기준

- 1) 신청/응모 자격 적격 여부 우선 심사
- 2) 마감일 이후 제출한 원고는 심사에서 제외
- 3) 정해진 원고 분량을 초과한 교육안 응모작은 심사에서 제외

다. 수상작 통보 : 2015년 5월 14일(목)까지 NAKS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라. 유의 사항

- 1) 수상작의 저작권은 주최 측에 귀속되며 출판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음
- 2) 수상자들은 수상 후 수상소감문과 수상소감 동영상을 김구재단 담당자와 NAKS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③ 시 상

가. 수상자 전원 NAKS 학술대회 참석 경비 지원(수상자 특전 참조)

나. “교육 연구 장려금” 지급(기타 세부사항 참조)

④ 시상식

가. 일시/장소: 2015년 7월 학술대회 기간 중 학술대회장(세부사항 추후통보)

나. 시상식 참석: 수상자는 시상식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함.

*기타 세부사항은 NAKS 웹사이트 참조 ⇨ www.naks.org

상설강사 목록집 발간

1. 목 적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산하 각 지역협의회에서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한국학교 교사를 추천받아 <상설강사 목록집>을 만들어 배포하고, 교사 연수시 활용하도록 함으로서 협의회 소속 한국/ 한글학교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한다.

2. 2015년 NAKS 상설강사 목록집 발간 일정

내 용	일 정	내 용	일 정
공지/추천서 발송	2015. 2. 6.(금)	정리 및 발간	~ 2015. 7월초
추천서 접수 마감	2015. 3. 31.(화)	배 포	2015년 7월 16일(목)~18일(토) (NAKS 학술대회 기간)

담당: 권예순 홍보, HP: 469-231-2733 Email: pr@naks.org

학교운영 서식집 발간

1. 목 적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산하 각 지역협의회와 학교가 보유한 각종 서식을 모아 <학교운영 서식집>을 발간, 배포하여 각 학교의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한다.

2. 2015년 NAKS 학교운영 서식집 발간 일정

내 용	일 정	내 용	일 정
공지/추천서 발송	2015. 2. 6.(금)	정리 및 발간	~ 2015. 7월초
추천서 접수 마감	2015. 3. 31.(화)	배 포	2015년 7월 16일(목)~18일(토) (NAKS 학술대회 기간)

담당: 권예순 홍보, HP: 469-231-2733 Email: pr@naks.org

홍보 업무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추진 사업 및 행사의 보도자료 배포, 행사 사진 촬영, NAKS 브로셔 및 후원서 발송, 배너 광고 및 지면 광고 안내문 발송.

담당: 권예순 홍보, HP: 469-231-2733 Email: pr@naks.org

『백범일지』 독서 감상문 쓰기대회

1. 목 적

재미한국학교협의회는 본국의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 《재단법인 김구 재단》과 공동 주최로 겨레의 큰 스승이신 백범 김구선생의 삶과 사상이 담긴 『백범일지』를 통해, 자라나는 재외동포 청소년들에게 선생의 생애와 겨레사랑, 나라사랑 정신을 바르게 알리고, 참된 용기와 지혜, 불굴의 투지와 희생정신을 고취시킴과 동시에 대한민국을 모국으로 하는 한국계 재외동포로서의 정체성을 바르게 지녀 민족적 자긍심을 드높이며, 개인과 사회, 국가와 인류를 위해 자신의 역할을 다 하도록 돕고자 한다.

2. 주최: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협회, 재단법인 김구 재단

3. 대상: NAKS 14개 지역협의회 소속 한국/한글 학교에 재학 중인 4~12학년 재학생

- * 초등부 (4~6학년), 중등부(7~12학년)
- * 제외: 한국에서 초등학교 이상의 학교를 2년 이상 재학했던 학생
- 예년 대회 수상자: 백범상, 최·우수상

담당: 한희영 교육, HP: 408-482-9509, Email: edu@naks.org

■ 2015년 제5회 『백범일지』 독서 감상문 쓰기대회

① 선정도서: 김구 아름다운 나라를 꿈꾸다.

② 응모방법

가. 한국 / 한글학교 단위로 신청서 제출

- * 동시발송: 김구 재단: 정요실 실장 kkf@kimkoo.org
- NAKS 실무 담당자: 한희영 교육간사 edu@naks.org

나. 제출 마감일자

- * 신청서: 2015년 2월 10일(화) 한, 독후감: 2015년 4월 28일(화) 한
- * 현재 상황(2월 10일): 전국 66개 학교, 290명 학생신청, 각 학교로 도서 발송

라. 심사/수상자 선정 및 당선 통보: 2015년 5월 14일(목)까지 NAKS 홈페이지 게시 및 담당학교 선생님께 통보

- * 기타 세부사항 NAKS 홈페이지 참조 ⇨ <https://www.naks.org>

③ 시상내역

가. 수상자 전원 시상식 참석 경비 지원(수상자 특전 참조)

나. 장학금 지급

상 명	구 분	인 원	시상금(1인 기준)	
			장학금	비 고
백범상	초등부/ 중등부	1명	\$ 500×1명	상패, 장학금
백범통일상	초등부	1명	\$ 100×6명	상패, 장학금
백범평화상	중등부	6명	\$ 100×6명	상패, 장학금

④ 시상식

가. 일시 / 장소: 2015년 7월 학술회 기간 중 학술회장(세부사항 추후통보)

나. 시상식 참석: 수상자는 시상식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함. 수상자 특전사항 반드시 확인.

- * 기타 세부사항 NAKS 홈페이지 참조 ⇨ <https://www.naks.org>



네 소원이 무엇이냐? 하고 하느님이 물으시면,
나는 저승자랑과 내 소원은
대한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요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
? 하는 세재면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 대한의 완전한 자주독립이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제11회 나의 꿈 말하기 대회

1. 개 요

각 지역협의회에서 시행된 ‘나의 꿈 말하기 대회’ 우승자 중 추천을 통해 선정된 3개 협의회 우승자가 학술대회에서 발표 한다. 담당: 한희영 교육, HP: 408-482-9509, Email: edu@naks.org

2. 접 수: 2015년 4월 20일(월)한 신청서 마감

3. 협의회 추천: 학술대회 개최지는 0 순위 부여, 해 순서 협의회 기권시 기회는 차순위 협의회로 자동 인계

순번	지역협의회	순번	지역협의회	순번	지역협의회	순번	지역협의회
0	동북부	3	워싱턴	6	남서부	9	플로리다
1	미시간	4	중남부	7	뉴잉글랜드	10	동남부
2	서북미	5	중서부	8	하와이	11	북가주

4. 발표일시 / 장소: 2015년 7월 18일(토) 오후 6:00 / 학술대회 만찬장

5. 참가 대상 / 자격

1. 각 지역협의회에서 시행된 ‘나의 꿈 말하기 대회’ 우승자 중 추천
2. 2004년 1월 1일 ~ 1997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학생으로서 현 거주지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협의회 소속 학교 학생.
3. 현재 지역협의회 산하 한국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4. 한국에서 초등, 중등, 고등 교육을 1 년 이상 받지 않은 학생
5. 지난 대회 대상 수상자 참가 불가

6. 심사기준

① 원고내용(50%)

꿈 내용의 순수성, 건전성, 솔직성, 창의성을 중시함. 추상적인 내용보다 생활경험이 담긴 내용으로 듣는 사람에게 잘 전달되어 감동을 주는 내용, 세련된 내용보다 순수한 학생의 눈높이에서의 꿈의 내용. 내용이 주는 메시지가 있어야 함. 낱말의 선택 등.

② 발표태도(30%): 자연스러운 태도, 내용의 이해도, 자신감, 표현력, 설득력, 호소력

③ 감동(20%): 듣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따뜻한 감동을 주는가를 봄. 관객의 반응, 호응도.

④ 기타: 발표시간은 3-4분이며 4분이 넘으면 감점

*위의 심사 기준을 바탕으로 지역협의회에서 대회를 치러주십시오.

7. 제출서류: 나의 꿈 말하기 대회 신청서, 발표 원고, 참가자 사진(명함판), 지역협의회 대회 수상 사진

8. NAKS 시상내역

1. 각 지역 1등 학생에게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총회장 표창장
2. 발표 학생들에게는 주미대사관 교육관 표창장

NAKS 평가교재

1. 목 적

교육 평가는 의도한 교육 목표가 교육과정과 수업 활동을 통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하며 학생의 학습 능력 및 학습 진도를 측정하여 학습자에게 맞는 레벨의 학습을 제공함으로써 학습자에게 도움을 주며 또한 학습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낙스에서 표준화된 교육평가 방법이 꼭 필요하다. 현재까지 낙스 소속의 많은 학교들이 사용하고 있는 평가는 SAT-II 모의고사와 한국의 TOPIK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 SAT-II 모의고사는 적어도 정규학교 7학년 이상이 되어야 하고 TOPIK 시험도 동포 학생들의 학습 능력을 평가하거나 수업활동을 돕는데는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많았다. 이에 본 협의회에서 현재 협의회 소속 한국/한글학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맞춤형 한국어’와 ‘한글학교 한국어’ 교재를 바탕으로 평가교재를 개발하여 학생들의 학습을 돕고 교사들의 교육 계획과 한국학교 간의 표준화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2. 교재 내용

가. 맞춤형 한국어’와 ‘한글학교 한국어’ 교재 1-6까지 단원별 진단평가 개발

나. ‘맞춤형 한국어’와 ‘한글학교 한국어’ 교재 1-6까지 단원별 총괄평가 개발

다.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발표하기 등의 영역 포함

라. 객관식 및 주관식 평가

마. 수행평가 내역도 포함

바. 절대 평가 기준으로 70% 이상의 성취도를 보일 때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 있는 수준으로 제작

3. 사업추진 일정: 2015년 3월 1일(일) ~ 2016년 2월 29일(월)

4. 교재 위원

가. 신청서(추천서) 접수 / 위촉: 2015년 3월 16일(월) ~ 2015년 3월 30일(월)

나. 위원수 및 대우: 개발자 6명, 교정 및 평가자: 6명, 낙스에서 소정의 사례금 지급

다. 자 격

- 1) 지원하는 학년을 2년 이상 가르친 경험이 있으며, 한국학교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자
- 2) 교사자격증 소지자
- 3) 어문학 및 교육학 전공/배경

라. 업 무

개발자	① 평가문제 출제, ② 평가 최종 문제 확정, ③ 평가문제 정리 제출
교정 및 평가자	① 평가문제 교정, ② 평가문제 검토 ③ 교정 및 검토 보고서 작성

5. 신청서(추천서) 접수: 오정선미 사무총장, HP: 267-255-4653, Email: gs@naks.org

2015년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집중연수

1. 목 적

학생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학생들이 꼭 오고 싶고 부모님들이 보내고 싶은 한국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교사들이 준비하고 교실에서 적용할 수 있는 진보적인 교수이론과 교수법을 서로 논다.

2. 일 시: 2015년 7월 15일 수요일(9시부터 21시까지) ~ 16일 목요일(오후 역사강의 필수)

3. 장 소 / 연락처: 100 Frank W Burr Blvd, Teaneck, NJ 07666 / (201) 836-0600

4. 자 격 / 정 원: NAKS 회원교 교사에 한함. / 50명(선착순)

5. 등 록

가. 방 법: 협의회 웹사이트를 통하여 등록함, www.naks.org

* 신청자가 직접 NAKS 웹사이트에서 등록, 별첨된 참가 신청서 없음.

나. 등록비: \$50

다. 마감일자: 2015년 5월 31일까지

6. 숙 식

가. 집중연수 기간 중 식사는 개인 부담

나. 침실은 2인 1실 \$74.18/day, 1인1실 \$148.35/day

* 호텔에 직접 전화 혹은 협의회 웹사이트를 통해 예약/등록

담당: 김정자 부회장, HP: 609-224-3465, Email: jipjung@naks.org

7. 연수일정

*강의 시간은 전체 일정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

구 분	시 간	강 의	집 중 강 의	강 사
1일차(수) 집 중 한국어 교 육	오전	8:30	개회식	전체
		9:00	강의 1 총체적인 커리큘럼 (Integrated Curriculum)	박찬영 교수 (보스톤 애머스트 대학교)
		11:00	강의 2 창의적인 학습 지도안 (Creative Lesson Plan)	TBD
	오후	12:30	점심 식사	.
		2:00	강의 3 학급경영 (Classroom Management)	조은미 교수 (캘리포니아 주립대 새크라멘토)
		4:00	강의 4 평가 (Evaluation)	TBD
		6:30	저 녁 NAKS Talks!	모두 함께
		8:00	강의 5 Practicum (Integrated Korean Learning)	모두 함께
		9:00	강의 6 교사 시연 (Lesson Plan Presentation)	모두 함께
2일차(목) 집 중 역사교육	오전	10:00	시상식	전체
		12:00	점심 식사	.
	오후	13:00	역사 강의(예정)	전체

2015년 순회 연수

교육은 교사의 질을 능가하지 못한다는 말을 많이 한다. 그만큼 교육에서 교사가 중요하고 좋은 교육은 훌륭한 교사가 있을 때에 가능하다. 한국학교에서의 교육도 마찬가지이다. 열정적이고 유능한 교사로 학교가 채워질 때 한국학교 교육의 질적인 향상과 교육 본연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본 협의회 정기 여름학술대회는 교사 전문성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교사 연수의 기회이지만 미주에서의 바쁜 이민 생활 속에서 모든 비용을 본인이 감당해야 하는 현실을 생각할 때, 한국학교와 각 지역의 모든 교사들이 학술대회에 참석하여 미국과 한국에서 선임된 훌륭한 강사들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안한 연수가 순회 연수이다. 학술대회 등을 통해 만난 훌륭한 강사를 지역에서 초청하고 싶어도 비용 등을 감안할 때 지역협의회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본 협의회와 2~3개 지역협의회가 협력하여 강사를 초청하고 명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이다.

지난 2월 14일 서북미 지역을 선두로 콜로라도 지역과 북가주 지역에서 첫 순회 연수 강의가 이어졌다. 서북미 지역 고영란 회장은 강용철 선생님의 명성을 듣고 멀리서도 교사들의 많이 참석하기를 원했고, 시애틀에서 3시간 거리인 오레곤 지역에서도 40여개 학교에서 선생님들의 간절한 요청이 있어서 강용철 선생님께 부탁을 드렸더니 감사하게도 요청을 받아주어 좋은 배움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하며 지역이 활성화되는 큰 성과가 있었다고 했다. 시애틀, 포틀랜드, 덴버, 샌프란시스코 등지에서 개최된 이번 순회 연수에는 약 25-40% 증가된 교사 참여도를 보였다.

이번 순회연수는 NAKS와 서북미, 콜로라도 그리고 북가주 지역협의회의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수고해 주신 세 분의 지역 회장님들께 감사드리고, 지역협의회의 협력으로 아주 멋진 순회연수가 개최되었고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계속되어 지역협의회 및 일선 선생님들의 발전과 성장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최미영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총회장



미국 정규학교에서의 한국 역사·문화 교육 실태 조사

1. 개 요

2015년 1월부터 3월까지 미주 최초로 정규학교에서의 한국 역사문화 교육의 실태에 관한 표본 조사를 주미대사관 교육관실의 지원으로 실시하였다. 미국에서 6개 주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72개교의 153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였고 자료를 분석하여 현재 미국 정규학교에서의 한국 역사 문화 교육의 상황을 알아보고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짐작으로만 알고 있던 정규학교에서의 한국에 관한 수업이나 교육 내용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사에 응한 학생 중 20% 학생만이 세계사 혹은 일반 사회과 시간에 한국에 관하여 배운다고 하였고, 그 내용도 한국전쟁, 남북분단 그리고 일제 강점기에 한정되었다.

한국에 관하여 제대로 된 교육이 없는 상태로 계속된다면 동포 학생들이 모국에 관하여 긍지를 갖지 못할 뿐 아니라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고 강조한 말처럼 마침내는 자신의 뿌리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선다. 그와 함께 다른 민족의 학생들도 한국에 관하여 바른 인식을 갖지 못하게 될 것이다.

우리 협의회 소속 한국학교에서도 한국 역사 문화에 관하여 바른 교육을 실시해야 함과 동시에 한인들이 힘을 합하여 각 주의 역사 및 사회과 교육과정을 살펴보고 오류를 파악하여 고쳐 나가며, 한국 역사문화에 관하여 더 가르쳐야 할 내용을 넣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교과서를 개발하는 일에도 한국에 관하여 잘 아는 분들이 교과서를 만들 수 있도록 하며 정규 학교 일선 교사들에게 한국에 관하여 알리는 연수회를 개최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2. 한국 역사 문화 교육 실태 조사 및 연구 팀: 팀장 최미영(보고서 작성)

캘리포니아 주 지역
조사/분석팀:
윤제인, 김현주, 박은경



뉴저지/펜실베이니아
지역 조사팀: 오정선미

버지니아/메릴랜드 주
지역 조사팀: 이승민

*온라인 서베이: 김원구, 자문 교수: 조은미(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새크라멘토)

제33회 재미한국학교협의회 학술대회

미래를 향한 창의적인 차세대 교육

- **일 시:** 2015년 7월 16일(목) ~ 18일(토)
- **장 소:** Teaneck Marriott Hotel, 100 Frank W Burr Blvd., Teaneck, NJ 07666
- **사전 개최:** 집중연수 7월 15일(수) ~ 7월 16일(목)
- **동시 개최:** 제2회 『백범일지』 교육안 공모대회, 제5회 『백범일지』 독서 감상문 쓰기대회
제11회 나의꿈 말하기 대회 수상자 발표
- **등록:** 회원 기준으로 5월 15일까지 \$100.00, 5월 16일 ~ 5월 31일까지 \$120.00
5월 31일 등록 마감함.

담당/문의: 이승민 부회장, HP: 703-628-4537, Email: vp-sl@naks.org

1. 등록비: 회원들의 학술대회 기간 비용 / 2박 3일

구 분	등록비 (회원)	숙박비		총액 (등록비포함)
		참가자 1일 부담액	참가자 경비 (3박)	
1인 1실	\$100.00	\$148.35	\$445.05	\$545.05
2인 1실	\$100.00	\$74.18	\$222.52	\$322.52

2. 주요 프로그램

16일(수), 17일(목)	집중연수
17일(목)	역사강의, SAT-II 한국어, 강사 오리엔테이션, 만남의 시간
18일(금)	개회식, 시상식, 주제 강연, 분반 강의, 만찬, 근속교사 표창 점심: 초청강사와 호텔에서 식사
19일(토)	전체 강연, 분반 강의, 만찬, 나의 꿈 말하기 대회 선발 학생 발표, 백범일지 대회 시상식, 지역협의회 장기자랑, 제34회 학술대회개최지 소개 점심: 초청강사와 호텔에서 식사 저녁만찬 후: 지역협의회 장기자랑대회(7~10분 발표), 개인장기자랑 신청

3. 교 통

가. 뉴욕과 뉴저지의 세 공항(JFK, LGA, EWR)에서 메리어트 호텔까지 왕복 셔틀을 운행

*단, 미리 예약하신 분들만 이용 가능

나. 셔틀 요금(편도)

*뉴욕 JFK 공항(JFK): \$20, 라파디아 공항(LGA): \$15, 뉴왁공항(Newark): \$15

*푸른투어로 미리 예약해주세요. ☎201-313-08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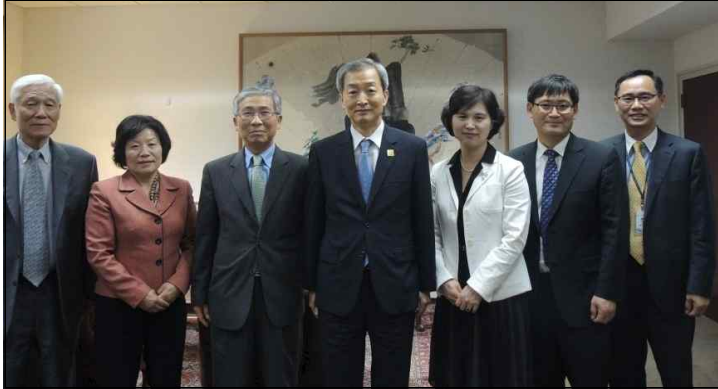
4. 관 광

학술대회 후 19일부터 뉴욕시내 1일 관광과 5박6일의 미국 동부 관광까지 여러 관광 상품이 있음.

자세한 사항은 NAKS 홈페이지 참조 ⇨ <https://www.naks.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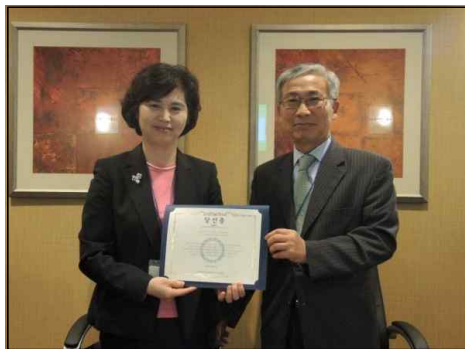
17대 사업보고

① 주미 대사관 방문(2014. 9. 19.)



최미영 총회장, 장동구 이사장, 이승민 부회장, 김대영 부이사장, 이내원 전직 이사장은 주미 대사관을 방문하여 안호영 주미 대사를 예방하였다. 이 자리에는 정종철 교육관과 안미혜 워싱턴 교육원장이 배석했다.

② 시무식(2014. 9. 20.) / Newark, NJ



변함없는 마음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항상 배우고 성장하는
17대 임원의 일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NAKS 17대 임원 시무식이 2014년 9월 20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Newark에 위치한 Marriott Courtyard에서 있었습니다. 시무식에는 17대 임원 9명 전원과 장동구 이사장, 이광호 직전 이사장, 신현주 감사, 심운섭 감사, 오영훈 재외동포재단 주재관이 함께 했습니다.

③ 정종철 교육관 간담회(2014. 12. 19.)



참석자: 정종철 교육관, 신주식 샌프란시스코 교육원장, 최미영 총회장, 장동구 이사장, 한희영 교육간사, 황희연 북가주 지역 부회장, 정해천 북가주 역사·문화 교육위원회 상임위원이 참석했다.

④ 차세대 교사 워크숍(2015. 1. 17. ~ 18.) / San Francisco, CA



전체강의 시간(위)

김봉섭 재외동포 재단교육지원 부장님

차세대Workshop 참석자들(옆)



NAKS 산하 지역협의회에서 선발된 17명의 차세대 교사들과 한동만 샌프란시스코 총영사, 김봉섭 재외동포 재단 교육지원 부장, 장동구 NAKS 이사장, 최미영 NAKS 총회장과 담당임원들이 참석했다. 강의는 프레즈노 CSU 대학교 석좌교수님이신 차만재 교수님과 LA 교육국 수지오 교장선생님, NAKS 이승민 부회장, 윤제인 실리콘밸리 한국학교 교장, 송지은 스탠포드 반석한국학교 교장님들이 선배 차세대 교사로서 후배 교사와 함께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조규형)과 NAKS 임원진 간담회(2015. 1. 18.) / San Francisco, CA



조규형 이사장님은 한국학교 선생님들을 독립군이라고 칭하면서 선생님들의 사명감과 열정에 감사한다고 했다. 최미영 NAKS 총회장은 차세대 교사 워크숍을 재단의 지원으로 잘 마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리고, 앞으로 차세대 교사들의 열정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그들만을 위한 집중 연수회와 초청 연수 등의 연수회 강화가 중요하다고 말하였습니다.

사진: 최미영 총회장, 김인숙 부회장, 이승민 부회장, 유미순 재무, 장은영 북가주 회장, 한희영 교육 간사, 장동구 이사장 참석.

⑥ 지역협회장 연석회의(2015. 1. 23. ~ 24.) / Orlando, FL



회의에는 14개 지역 협회장들과 17대 집행부 임원들, 나스 이사장과 부이사장, 정종철 교육관이 참석했다.

⑦ SAT-II 한국어 모의고사 출제위원회(2015. 1. 30. ~ 2. 1.) / Dallas, TX



모의고사 출제위원: 임택현 교사, 방정웅 위원장, 최연미 박사, 강주언 박사, 정광형 박사, 행정 김인숙 부회장

⑧ “웃음과 감동이 있는 한국어 수업을 생각하며” 순회연수 강용철 교사

■ 1차 순회연수: 서북미 지역(시애틀, 포틀랜드)



시애틀: 2015년 2월 14일(토) / 20개 학교 80여명



포틀랜드: 2015년 2월 16일(월) / 19개 학교 70여명

■ 2차 순회연수: 콜로라도 지역(덴버)

* 2015년 2월 17일(화) / 12개 학교 40여명



강영철 순회강사



콜로라도 순회연수 단체사진

■ 3차 순회연수: 북가주 지역(산호세)



북가주 순회연수 단체사진



북가주: 2015년 2월 21일(토)
43개 학교 220여명

북가주 강의시간

남서부 지역협의회

▪ 지역협회장: 이순희

① 5개 지역 교사연수회 매년 개최

텍사스, 알칸사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오클라호마
5개 주 한글학교 교사 연수회를 매년 개최합니다.



② 우리말 중창대회 및 나의 꿈 말하기 대회 (예정: 2015. 5. 9.(토) / 휴스턴)



③ 한글창제 기념 백일장 및 사생대회

•시행: 매년 10월 첫째 주 토요일

- 목적 : 모국과 한글을 더욱 더 사랑하게 하고,
한글 실력을 향상시키고 격려함.
- 백일장: 지정된 주제로 시, 산문 작성
 - * 시상내역 상장과 상금
 - 장원: 시, 산문 부문 각 1
 - 차상: 시, 산문 부문의 초, 중, 고 각 1
- 사생대회: 학교별 또는 지역협의회별로 실시 함.
 - * 2015년 10월 3일(토) 10:00~12:00 실시 예정
 - 장소는 각 학교에서 실시 후 원고 종합



뉴잉글랜드 지역협의회

■ 지역협회장: 한순용

① 어린이 동요 합창제

어린이들에게 동요를 널리 알리고 동요를 통해 아름다운 한국어를 익히는 기회를 가지며, 함께 합창을 준비함으로써 음악교육의 효과 뿐 아니라 책임감과 협동심을 높이는 교육적 목적으로 매년 12월에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서로의 실력을 겨루는 단순한 대회가 아니라 회원교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여 동요도 부르고 간식도 나눠먹으면서 연말 축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행사준비에 다각도로 힘쓰고 있습니다.

해마다 8개 학교 이상, 200여명의 학생들이 참가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특별히 산타할아버지가 등장하여 학생들에게 선물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마련하여 학생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었습니다.



② 봄 교사 연수회 및 사은회

교육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각 학교 교사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또한 교사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재교육의 기회를 갖고자 해마다 봄에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행사는 전체강연과 공로패, 감사패, 우수 및 장기근속 교사 표창 등 시상식, 그리고 축하공연과 저녁식사로 이어지며 13개 학교 150여명의 교사 및 관계자가 참석하여 편안하고 뜻깊은 시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③ 그림 그리기 대회 및 민속놀이

어린이 그림 그리기 대회 및 민속놀이는 야외에서 진행되며 학생들의 호응이 가장 높은 행사입니다. 오전에는 학년별로 풍경화 또는 제시된 주제로 상상화를 그리고 점심 식사 후 각 회원 학교에서 준비해 온 게임을 하게 됩니다. 보물찾기, 줄다리기, 투호놀이, 2인 3각 릴레이, 널뛰기, 콩 주머니 던지기 등의 놀이와 face painting도 하고 솜사탕도 먹으며 봄 소풍과 가을 운동회를 겸한 행사로 해마다 10개 학교, 25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여 즐거운 시간을 가집니다.





동남부 지역협의회

■ 지역협회장: 선우인호

① 제10회 한글 올림피아드

■ 동시와 동화구연

■ 문장순서 맞추기

* 목표: 단어나 문장을 문법과 생활회화에 맞게
연결함으로써 문장실력을 키운다.

* 담당선생님 : 송해순

* 출전등급: 자음반, 초등2: 2~3학년,
중등부: 4~6학년, 고등부: 7학년 이상

■ 이야기 듣고 요약하기

* 목표: 한국어를 듣고 그 내용을 요약하여, 글로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데 있다.

* 담당선생님: 이옥순

* 출전등급: 자음반 및 모음반, 중등부: 4~6학년
고등부: 7학년 이상

■ 바른말 찾기

* 목표: 한국어 낱말실력을 향상시킨다.

* 담당선생님: 김윤정

* 출전등급:

- 자음반

- 중등부: 4~6학년

- 고등부: 7학년 이상

■ 받아쓰기

* 목표: 한국어를 듣고 그 낱말을 받아쓰으로써
정확한 듣기 능력과 쓰기 능력을 향상시킨다.

* 출전등급

- 자음반

- 초등 1: P~1학년

- 초등 2: 2~3학년

- 중등부: 4~6학년

- 고등부: 7학년 이상



② 동남부 교사 연수회(3월 28일)



동남부 교사 연수회 및
총회 (2015년 3월 28일)
220명의 교사가 참석한
가운데 최미영 닉스
총회장의 전체 강의와
분반 강의 및 교장 회의가
진행되었고 총회에서 현)
선우인호 회장이 재 선출
되었다.



동북부 지역협의회

■ 지역협회장: 김경욱

① 제8회 동북부 지역 역사문화 퀴즈대회 (2014년 12월 6일(토))



② 제7회 동북부 협의회 주최 '교사의 밤'



③ 나의 꿈 말하기 대회



④ NAKS 동북부협의회, 교사 연수회 개최



행사명	시행월	주최학교
정기총회, 교장단 회의	9월	.
한글 글짓기대회	10월	뉴저지한국학교
한영/영한 번역대회	11월	2012년 셋별상 신설
역사문화 퀴즈대회	12월	아콜라한국문화 학교
임시총회	1월(격년)	.
교사의 밤/모범교사시상	3월(격년)	.
SAT-II 한국어 모의고사	3월	.
동화 구연대회	4월	롱아일랜드한국학교
나의 꿈말하기 대회	4월	스태튼 아일랜드한국학교
한국어능력 검정시험	4월	.
어린이 예술제	5월	.
어린이 동요대회	6월	갈보리무궁화한국학교
어린이 민속잔치	6월	원광한국학교
교사연수회(NY, NJ)회보	6월	.
학술대회 및 총회	7월	전국협의회 주관

동중부 지역협의회

▪ 지역협회장: 설인숙

① 한글날 세종대왕과 독도를 만나다”

- 일시: 10월 11일(토) 한글날 기념행사
 - 장소: 벅스 카운티 한국학교
- 700여 명의 교사와 학생참여, 독도 글짓기대회와 그림 그리기대회 및 각종 학습체험을 통해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② 2014년 교사 송년의 밤 행사

- 일시: 12월 13일(토) 한글날 기념행사
 - 장소: 펜아시안 노인복지원
- * 120여 명의 교사참여, 교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수고한 모범교사들을 시상하고 각 학교별 장기자랑과 여러 가지 게임을 통해 흥미로운 시간을 가졌다.



③ 동중부 한국학교 대표자 회의

- 일시: 2015년 3월 7일(토)
 - 장소: 펜아시안 노인복지원
1. SAT-II 한국어 모의고사 시험지와 답안지 배부
 2. EBS 교육자료 전달
 3. 2015년 협의회 행사 논의: 4월과 5월에 각각 실시할 나의 꿈 말하기 대회와 동요 부르기 대회 등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의회 산하 모든 학교들이 적극 동참,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미시간 지역협의회

■ 지역협회장: 오준석

① 세종 역사문화캠프 - 문화 체험수업

2014년 8월 11일 ~ 8월13일 앤아버 가까이 있는 Grass Lake의 Faholo Camp장에서는 미시간 지역 40명의 한국학생들이 모여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체험적으로 익히는 제1회 세종 역사문화 캠프가 열렸습니다. 2박 3일의 바쁜 일정으로 한국사 개관과 한국의 고대역사부터 근·현대를 다루는 한국 역사수업과 그에 따른 액티비티 시간을 가졌으며 한국의 거리문화와 거리 음식을 체험해 보는 시간, 조선시대 신사임당의 초충도를 재현하여 병풍을 만들어보기도 하고 전통제분 양식으로 역대 조선왕의 수결(임금님과 대통령의signature)이 들어있는 책을 제본한 뒤 그 책에 자신의 캠프생활 사진을 붙여보는 활동을 해 보기도 했습니다.



SAEJONG SOCIETY OF DETROIT

제1회 세종 역사문화 캠프

캠프대상 미시간 5학년 ~ 12학년 (2014년 가을학기 예정, Upcoming)

캠프일시 및 장소
2014년 8월 11일 (월) ~ 8월 13일 (수) Faholo Camp Site : www.faholo.org

캠프등록
2014년 4월 20일 ~ 6월 20일 (선착순 마감)
세종 웹사이트에서 등록용지 다운로드 후 우편으로 등록 www.misaesongschool.org — 세종캠프
또는 연락처 (248-562-7741) 에 등록용지를 요청하여 우편으로 등록

캠프참가비
\$185.00 (한자녀), \$340 (두자녀), \$480 (세자녀) Pay to : Saejong Society of Detroit

우편등록
Saejong History & Culture Camp P.O. BOX 250632 Franklin, MI 48025

캠프후원 미시간 한국학교협의회, KPAI, KCAM, 재외동포재단, 사카고 한국교육원



② 한국학교 축제

한국과 관련된 재미있는 활동들을 통해 한국 학교에 대해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한국인으로서의 긍지를 북돋우고자 마련 된 축제입니다.



③ 교사 연수회(10월 18일)

Michigan State University에서 2014년 추계 교사 연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북가주 지역협의회

■ 지역협회장: 장은영

① 꿈나무 예술제

한국어 수업의 기초가 되는 글과 말, 그리고 열인 역사 문화를 수업하며 실시하던 교내 학습발표회를 이번 연도에는 협의회 차원에서 <곰나무 예술제>로 시행하였다. 이 행사를 통해 각 학교들은 배우고 경험한 것들을 함께 나누며 화합하는 자리가 되었고, 교사들에게는 학생 지도를 위한 교사 연수의 장이 되었으며,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는 모국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된 행사였다. 더불어 실시한 <신입 교사 양성 연수>는 신입 한국학교 교사가 갖는 두려움을 없애 주고 격려하기 위한 협의회 최고의 교사진들의 수업 노하우를 배우는 워크숍으로 분반별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발행일: 2014년 4월 10일 목요일

정체성 함양하고 재능 키운다

재미한국학교 북가주협, 내달 10일 '꿀나무 예술제' 개최

남타-K-Pop 를 선보여

북가주 천연학생들의 정체성을 함양하고 재능을 키우는 '한나무 예술제'가 열린다.

재미한국학교 북가주 협의회(회장 장관영)는 내달 30일(토) 오후 4시 안초로 일대(노원 장로교회)당인 순관제 목사)에서 예술제를 개최한다.

예술제에서는 15개팀이 난타, K-Pop, 합창, 가극단, 댄스, 풍물 선보일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오는 14일(월)까지다.

중앙일 회장은 9일 전화로 신정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가를 주는데 열의 소극한 한국학교 학생들이 한 라키온을 만나-문화수익을 통해 교육 내용을 예술제에

서 발표한다"며 "학생들이 자신의 뿌리를 알고 모국에 대한 감사와 자부심을 갖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강희영은 또한 "매년제를 통해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지리 학습 차세대 문화 교육의 꿈을 만들고 인도네시아인으로 변화시켜주는 과정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희영 기자



대일 10일 '홍사루 예술회'를 개최하는 제2한국학교 참가자 협의회 관계자들이 기자회견 후 모습을 보이고 있다. (왼쪽부터) 송지호 스타일 이사장(앞줄왼쪽)과 한상봉 제2한국학교 참가자 협의회 회장(앞줄가운데)은 장모영 회장, 송수진 대표, 오도연 간사

서북미 지역협의회

■ 지역협회장: 고영란

① 합창대회 및 중·고등부 장기자랑(350명 참가)



② 학예 경연대회(1,000명 참가)



③ 6·25 전쟁 기념식(60명 참가)



④ 어린이 한국문화체험(600명 참가)



⑤ 서북미 지역협의회 하반기 교사 연수회(2014. 10. 25.)



워싱턴 지역협의회

▪ 지역협회장: 한연성

① 워싱턴 협회 교장(대표자) 회의(2015. 2. 7.): 50명 참석, 대사관 안미혜 교육원장 참석



② 제26회 교사의 밤(2014. 12. 13.(토))



최우수 교사상과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장기 근속교사들을 위한 감사패를 증정한다.

③ 교사 연수회(2015. 2. 28.(토))



교사 연수회에 359명 참석, 성황리에 치루었습니다.

④ 제31회 연합학예회 / 제9회 나의 꿈 말하기 대회(워싱턴 협회 200명 참가)



⑤ 시 낭송, 동화구연, 나의 꿈 말하기

▪ 일시: 2015년 4월 11일(토) 오후 1시 ~ 오후 5시 30분

▪ 장소: 하상 한국학교

중남부 지역협의회

■ 지역협회장: 김명숙

① 제15회 · 16회 중남부 교사 연수회



15회 가을 연수회(루이빌 한국학교)

지역 교사들이 함께 모여 각종 정보도 교환하고, 좋은 강의도 듣고, 교사 가요열창대회(장기자랑)을 통해 자신들을 표현하고 교류하고, 지난 한 해 동안 열심히 수고하신 모범교사를 각 학교에 신청 받아 표창하고 격려합니다.



16회 봄 연수회(메디슨빌 한국학교)

② 5월 중남부 학생 7차 축제



말하기 대회, 글짓기와 그림그리기 대회 등 각종 한글관련 대회가 펼쳐지고, 학교별 장기자랑, 한민족문화 민속놀이 축제 등 각종 문화 행사 및 게임들을 통해서 학생들의 축제의 장이 됩니다.

③ 6월 청소년 리더십 캠프



④ 역사 · 문화 골든벨 퀴즈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A nation that forgets its past has no future”
 처칠, 영국수상

중서부 지역협의회

▪ 지역협회장: 명계웅

① 교장 신년 하례식, 교장 연수 및 교장회의

1월 17일 나일스 소재 론트리 매너에서 30여명의 교장회의가 열렸습니다.



② 제53차 시카고 봄 학기 교사 연수회

2014-2015학년도 봄학기 교사 연수회는 2월 28일 150여명의 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버팔로 소재 가나안 한국학교에서 열렸습니다.



③ '오월의 하늘' 행사(2014년 5월 10일)



④ 나의 꿈 말하기 대회



⑤ 꿈나무 열린 마당(학생축제)



콜로라도 지역협의회

▪ 지역협회장: 유미순

① 교육자료 공모전(2014. 1. 8.)



② 백일장(2014. 4. 26.)



③ 가을학기 연수회(2014. 9. 27.)



④ 민속놀이 한마당(2014. 10. 11.)



⑤ 미국 교사대상 한국 알리기(2014. 11. 1.)



⑥ 콜로라도 교사 연수회 및 사은의 밤

- 일시: 2014년 12월 13일(토) 오후 2시~6시
- 장소: 새문교회, Denver CO



최미영 NAKS 총회장이 직접 축사를 하고, 강사로는 이승민 NAKS 부회장이 초청되었다. 화기애애한 가운데 지난 1년을 돌아보며 선생님들의 헌신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플로리다 지역협의회

- 지역협의회장: 김 현

① 제41차 플로리다 지역협의회 교사 수련회

- 일시: 2015년 1월 17일(토)
- 장소: 올랜도 한국학교
- 참가: 17개 학교 70여 명



② 제25차 한글날 기념 글짓기 대회

- 참가: 17개 학교 70여명
- 수상: 18명/ 부상으로 테블렛 PC 및 도서상품권

대 상	·유치부(4-5세) ·초등부(6-10세) ·중등부(11-13세) ·고등부(14-17세)
주 제	나의 여름 이야기 (제목은 자유 - 소재 : 가족과 함께 한 여행, 감명 깊게 읽은 책 혹은 영화 등 방학 동안에 경험했던 모든 것이 소재가 됩니다.)
대회일	2014년 10월 4일 토요일 기준으로 전·후 9일 이전에 개최
참 가 방 법	'참가자 명단' 양식을 다운 받으셔서 대회에 참가한 모든 학생들의 명단을 기입합니다. 작품 제출은 각 학교에서 당선된 각 부분별 최우수작 한 작품씩 참가자 명단과 함께 제출
마감일	2014년 10월 31일 금요일
제출처	Jin Hee KIM (김진희 서기)
문 의	김경부 회장 (954) 328-5187 김진희 서기 (813) 767-8505
발표/시상	제 41차 교사 수련회에서 시상자 발표

③ NAKS 지역협의회장 연석회의 개최

2015년 1월 24일과 25일에 올랜도 Rosen Center 호텔에서 NAKS 지역협의회장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정종철 교육관님과 14개 지역 협회장님들과 17대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집행부임원들, NAKS 이사장님과 NAKS 부이사장님, 감사 등 총 30여 명이 참석, 7월 제33차 재미한국학교협의회 학술대회를 준비했다. 후원하신 플로리다 지역협회와 올랜도 한국학교 이사회에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



하와이 지역협의회

- 지역협의회장: 손애자

① 이민 111주년 기념 제21회 한글학교 교사 연수회 개최

- 일시: 2014년 9월 20일(토)
- 장소: 하와이 대학교 한국학 연구소
- 주제: 2세 뿌리교육을 위한 교사 전문성 함양



② 568돌 한글날 기념 제15회 한글 글짓기 대회

- 일시: 2014년 10월 4일(토)
- 장소: 하와이 대학교 한국학 연구소
- 주제: 2세 뿌리교육을 위한 교사 전문성 함양
- 공동주최: 재하와이한인학교협의회
한국일보 하와이/하와이대학교 한국학연구소
- 참석: 8개 한글학교 52명 학생
- 심사결과: 장원- 조지훈(12학년, 천주교 한글학교)
*주제: 한국인으로 자랑스러울 때
- 시상식: 10월 31일(금) 오후 4시 한국학연구소

③ 제14회 동요 부르기 대회

- 일시: 2014년 11월 15일(토)
- 장소: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 본당
- 후원: 주호놀룰루 대한민국총영사관, 재외동포재단, 미주한인재단 하와이, 하와이 한인사회학교 이사회, HI- Tech Sports Inc.
- 참가: 12개 한글학교 / 200여명 참석
* 독창 19명, 중창 5팀, 합창 9팀 등



신문기사로 살펴 본 협의회 활동

재외동포신문 dongpoews.net

美 韓 報 道 社 美 韓 報 道 社

美 한국학교 협의회, 제17대 임원회 발족

총회장에 최미영 북가주 다문화한국학교 교장 선출

2014년 09월 23일 (화) 09:53:54

김정삼 기자 lamsana@hotmail.net



▲ 재미 한국학교 협의회 제17대 임원들이 사무식에 참가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재미 한국학교 협의회(NAKS-The National Association for Korean Schools) 제17대 임원회가 발족되어 2014년 9월 1일부터 2016년 8월 1일까지 2년 임기가 시작되었다.

지난 7월 5일 인디애나 주 인디애나폴리스 JW Marriott에서 개최된 제 32차 총회에서 각 회원교 대표 2인이 참석하여 투표한 결과 최미영 북가주 다문화한국학교 교장이 총회장으로 선출되었고, 7월 4일 이사회에서 선출된 김정삼(뉴저지 트랜턴 한국학교 교장), 김민숙(충남부 지역협의회 부회장), 이승만(직전 워싱턴 지역협의회 회장) 부회장 등이 총회에서 인준 절차를 거쳐 당선되었다.

[2015-01-19]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기자간담회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북가주 방문
조규형 이사장, 정치력 신장 사업 지원 약속

재외동포재단 조규형 이사장이 북가주를 방문하여 한인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18일 저녁 산 칼로스 가야식당에서 있었던 간담회는 한동안 총영사를 포함한 각 지역 한인회장, 한국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조규형 이사장과 의견을 교환했다. 조 이사장은 "미주지역 한인동포들의 애로사항과 사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뉴욕, LA를 거쳐 이곳에 왔다"며 "미주지역 한인들의 정치력 신장을 위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친한파 정치인인 마이크 혼다 의원을 한인사회가 적극 후원하여 당선시켰듯이 한인들의 권익신장을 위해서는 정치적인 영향력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동안 총영사는 "750만 재외동포들을 대표하여 재외국민 사업을 총괄하는 재외동포재단이 지역한인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고 모임에 대한 부연설명을 했다. 최미영 한국학교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 총연회장은 "열악한 환경에서 뿌리교육에 앞장서고 있는 각 지역 한국학교들에 게 기재와 예산지원을 늘려달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SF저널 박성보 기자



중앙일보 2015년 1월 20일 화요일

‘차세대’ 전문성·네트워크 강화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제1차 차세대 교사 워크숍’

‘차세대의 비전과 리더십’ 주제

미 전역 차세대 한국어 교사들의 네트워크 구축과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총회장 최미영)는 ‘차세대의 비전과 리더십’을 주제로 지난 17일 별링게임 하얏트 호텔에서 제 1차 차세대 교사 워크숍을 개최했다.

18일까지 이어진 이번 행사에는 북가주를 비롯해 서북부, 중남부, 남서부 지역 출신 차세대 교사 17명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최미영 총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한국어 교육이 타민족과 이민3~4대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차세대 교사 양성이 절실하다”며 “나스의 본질과 본연의 목표를 재인식하며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은 특별히 두명의 감사가 나와 ‘교사의 자제’에 대해 특강했다. ‘리더십과 변화관리’를 주제로 강의한 LA 3가 초등학교 수지오 교장은 “변화하는 세상의 진정한 리더가 되기 위해 배워야 한다”며 “평생 배우는 자가 되라”고 조언했다.

캐슬테이트 프레즈노 정치학과

차만재 교수는 “정체성 확립을 위한 차세대 교사들의 효과적 역사교육이 필요하다”며 “미국의 주류사회에 대 소수집단적 접근”을 강조했다.

현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이혜진(25·실리콘밸리 한국학교) 교사는 “실리콘밸리에서 학교를 다녔던 선배로서 학생들과 세대차를 좁히는 방법과 문화적 차이를 줄여나가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며 “워크숍을 통해 사명감이 생겼고 차세대 교사들과 지속적으로 교류,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보경 기자



재미한국학교협의회가 지난 17일 별링게임 하얏트 호텔에서 개최한 제1차 차세대 교사 워크숍에 참석한 차세대 교사들과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앙일보 2015년 1월 27일 화요일

“차세대 리더 양성에 중점둘 것”

재미한국학교협 플로리다서 ‘연석회의’

20년만에 뉴욕 학술대회 확정도

미국 각지에 있는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총회장 최미영) 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연석회의를 갖고 향후 2년간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24일과 25일 양일간 플로리다주 올랜도 로렌스 호텔에 열린 회의에서는 오는 7월 16일부터 18

일까지 3일간 뉴욕에서 열리는 학술대회 준비 및 차세대 교사 워크숍 평가, 역사·문화 교육 강화, 순회강사 제도·웹사이트 활성화 방안, 평가 교재·배서 발간 등에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이날 참석한 각 지역협회장들의 행사 보고도 진행됐다. 최미영 총회장은 “제17대 임원진이 취임한 후 처음 모여 협의회의

비전과 리더 양성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며 “특히 각 지역 한국학교의 차세대 교사와 리더 양성에 중점을 두고 협의회를 운영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또 최총회장은 “여름에 열리는 학술대회를 20년만에 뉴욕에서 열기로 확정하고 성공적 개최를 위해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수렴했다”고 덧붙였다.

강유경 기자



지난 24일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연석회의에 참석한 임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 재미한국학교협의회]

20130915

자유동포신문

재외동포신문 dongponews.net

☞ 홈 > 뉴스 > 뉴스 > 북미 | 원안희/단체 소식

재미한국학교협의회, 다음 달 SAT-II 한국어 모의고사 시행

2015년 02월 13일 (금) 19:06:35

김영기 기자 kobe_jy@naver.com



▲ 제19차 SAT-II 한국어 모의고사 출제위원회(사진=재미한국학교협의회)

제19회 미국대학입학자격시험 서브섹트(SAT-II) 한국어 모의고사가 다음 달 20일부터 22일까지 시행된다.

재미한국학교협의회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달라스에서 열린 제19차 SAT-II 한국어 모의고사 출제위원회 모임을 통해 올해 시험 일정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시험은 실제 SAT II 한국어시험과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듣기, 어법, 독해력 분야에 해당하는 총 86개의 문제가 준비돼 있으며, 시험 시간은 1시간이다.

worldKorean

☞ 홈 > 뉴스 > 뉴스 > 북미

NAKS, 미국 서부지역서 순회 교사연수

8월에는 중부와 동부 순회연수

2015년 02월 24일 (화) 17:34:37

이석호 기자 dokko@hanmail.net



▲ NAKS가 2월14일부터 21일까지 미국 서부지역 교사연수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NAKS]

NAKS가 주최한 미국 서부지역 교사연수회가 최근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 총회장 최미영)는 "2월14일부터 21일까지 시애틀, 포틀랜드, 덴버, 산호세 등지에서 순회연수를 개최했다"면서 "오래된 지역 연수에는 19개교 70명이, 워싱턴주 연수에는 20개교 80명이, 북가주 지역 연수에는 43개교 220명이 참가했다"고 전했다.

14 February 26, 2015

종합

미주주간현대



연수회 직후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차세대 정체성 교육에 뜨거운 반응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순회연수 성공리에 진행

재미한국학교협의회(총회장 최미영)는 지난 2월14일 서부미 지역협의회를 선두로 콜로라도 지역과 북지 시애틀, 포틀랜드, 덴버, 산호세 거주 지역에서 순회 강의가 이어

시스코 등지에서 개최된 이번 순회 연수에는 기존의 연수회 보다 약 25~40% 증가된 교사 참여도를 보였다.

향후 8월에는 중부와 동부에서 순회 연수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가까운 지역협의회 별로 서로

SEATTLE N
시애틀 한인 뉴스넷

"한국학교 선생님들, 맛깔스런 한국어 수업은 이렇게..."



강용철 강사, 시애틀·포틀랜드 교사 연수회에서 교수법 전수
고영란 서부미협의회장 "교사 전문성 강화에 역점 둘 것"

새로 단장한 NAKS Web

1. 새로운 NAKS 웹의 탄생

김원구, NAKS 웹 관리자

요즘 같이 거의 모든 정보를 인터넷으로 얻는 시대에 좋은 웹을 갖추는 것만큼 효과적인 정보 전달 수단은 없다. 재미한국학교협의회 (NAKS) 웹에 쌓이는 정보는 소중히 보관해야 할 NAKS의 역사이다. 그만큼 웹이 소중하나 빠른 속도로 나날이 발전하는 웹 기술을 따라잡지 못하면 웹의 효용가치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고 새 웹이 필요하게 될 때가 있다. 따라서 NAKS 업무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최신 기술로 무장된 새로운 웹을 구축하게 되었는데, 예전 웹에 쌓인 정보와 역사의 기록을 온전하게 옮기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었다. 많은 작업 끝에 지난 2014년 11월 16일에 새로운 재미한국학교협의회 (NAKS) 웹을 일반에 공개하게 되었다.

2. 새 웹의 장점 및 기능

NAKS 웹은 협의회 행사 및 행정 업무를 보조하고 이와 관련한 각종 자료 및 정보를 보관하며 제공하고 홍보하는 것이 가장 큰 임무이다. 이를 잘 지원할 수 있도록 고안된 NAKS 웹은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다.

- ① 최신 웹 프로그램으로 사용자의 각종 웹 환경을 지원 (스마트폰에도 적합)
- ② NAKS 활동에 적합한 메뉴 구성 및 다양한 회원 권한 관리
- ③ 각종 기록 보관 (연혁, 각종 표창/수상자, 집행부 명단 등을 연도별로 보관)
- ④ 웹에 오르는 소식을 매주 1회씩 웹 회원에게 이메일로 전달
- ⑤ 민감한 회원 정보 수집에 필수인 암호화된 통신 (SSL Certificate secured website)
- ⑥ 학술대회 등의 행사 온라인 등록 및 신용카드 결제 지원
- ⑦ 각 웹 회원 계정을 통한 개인별 서비스 (영수증, 수료증 발행)
- ⑧ 이외에도 NAKS 및 지역협의회 달력, 온라인 설문 조사 기능, 게시글 수정 이력 보관, 사진 앨범, GoogleMap, GoogleTranslate 메뉴 등 다양한 기능이 있음.

3. 학술대회 온라인 등록

매년 개최되는 NAKS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는 NAKS의 가장 중요한 큰 행사이다. 소수 인원의 NAKS 집행부가 감당하기에는 매우 큰 규모의 행사인데, 보안(SSL) 기능을 구비한 웹을 통해 학술대회 등록을 받고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NAKS 집행부의 학술대회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이메일 주소가 검증된 웹 회원만 등록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온라인 등록비 결제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도록 준비하였다. 학술대회 온라인 등록 방법에 대해서는 본 협의회 웹에 자세한 설명이 준비되어 있다. ("Community / 웹 이용 안내" 페이지 참조)

웹에 회원으로 가입하면 학술대회 등록만이 아니라 아래와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 ① 웹에 오르는 새 소식을 매주 1회씩 이메일로 수신
- ② 현재 및 과거에 등록한 학술대회 조회 (등록자 본인이 입력 오타 수정 가능)
- ③ 현재 및 과거 등록비 영수증 혹은 수료증 등의 PDF 파일 제공
- ④ 선생님방 글쓰기 권한 (Community / 선생님방)

이외에도 여러 혜택이 있으나, 특히 NAKS 집행부로서는 등록자 정보를 온라인으로 집계할 수 있어 행사 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영수증 발행이나 수료증 발행 등의 업무를 자동화할 수 있어 일손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다.

4. 웹 이용 방법

NAKS 웹은 한국학교 선생님들을 위한 공간이므로 운영 목표가 뚜렷하다. 가령, 웹 회원에게 열려 있는 선생님방의 경우에 교육적으로 좋은 글을 올리면 환영하지만 광고성 글은 금지이며 예고 없이 삭제된다. 웹 이용 시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일단 웹에서 "Community / 웹 이용 안내" 페이지를 먼저 살펴보시기 바란다. 그래도 의문점이 있다면 "Home / NAKS Contacts / Contact NAKS" 페이지를 통해서 "웹 관련 문의"로 문의하시면 된다.

NAKS 후원안내

① 후원 단체



② 개인 후원 명단

■ 2014년 9월 ~ 2015년 3월 기부자 명단

다이아몬드 클럽 (\$10,000 이상)

무궁화 클럽 (\$5,000 이상)

올랜도 한국학교 / 플로리다 지역협의회

모란 클럽 (\$3,000 이상)

동백 클럽 (\$1,000 이상)

조기석/조윤정 (산타클라라 중앙병원)

오금옥 (NAKS 15대 재무)

김한일 (김진덕/정경식 재단)

이내원 (NAKS 10대 이사장)

서복미 지역협의회

오세웅/오정선미(17대 사무총장)

목련 클럽 (\$500 이상)

석류 클럽 (\$300 이상)

정철화 (북가주 다솜한국학교 이사장)

명계웅 (중서부지역협의회 회장)

김병석 (북가주 다솜한국학교 졸업생)

유미순 (콜로라도지역협의회 회장, NAKS 17대 재무)

김대영 (NAKS 12대 부이사장)

뉴잉글랜드 지역협의회

김명숙 (중남부 지역협의회 회장)

조신숙 (북가주 요셉한국학교 교장)

매화 클럽 (\$100 이상)

권예순 (NAKS 17대 홍보간사)

김정자 (NAKS 17대 부회장)

김경옥 (동북부지역협의회 회장)

선우인호 (동남부지역협의회 회장)

③ 후원 안내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는 교사들의 자원 봉사로 운영되고 있는 비영리단체입니다. 동포 학생들의 올바른 정체성 함양 및 뿌리교육을 위해 희망을 담은 후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 후원 문의: 최미영 회장(408-892-1623, president17@naks.org)
유미순 재무(720-252-3295, treasurer@naks.org)

- * 기타 세부사항은 NAKS 홈페이지 참조: www.naks.org

제 33 회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총회 및 학술대회

미래를 향한 창의적인 차세대 교육

- 사전 개최: 집중연수 7월15일(수) ~ 7월16일(목)
- 동시 개최: 제2회 『백범일지』 교육안 공모대회
제5회 『백범일지』 독서 감상문 쓰기대회
제11회 나의 꿈 말하기 대회 수상자 발표

일 시: 2015년 7월 16일(목) ~ 18일(토)

장 소: Teaneck Marriott Hotel, NJ

- 등록마감: 5월 31일(일)
- 등 록: www.naks.org
- 문 의 처: 이승민부회장
vp-sl@naks.org

Google's Mistake? Return My Name!

Dokdo Belongs to Korea!

Before 10/24/12
Dokdo 울릉군 799-805



After 10/24/12
Liancourt Rocks



구글 지도에서
독도 이름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단결입니다!

독도 이름 되찾기 서명 운동에 NAKS가 함께 합니다.

구글에 들고 갈 서명에 지금 동참해 주세요.

www.naks.org / sfkorean.com 에서 서명해 주십시오.